

2024
겨울호
vol.129

골롬반 선교



“

사랑하는 형제 사제 여러분,
시노드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곁에서
저 또한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호데게트리아(Hodegetria), 길의 인도자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립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본당 사제들에게 보내는 서한』, 2024년 5월

vol. 129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기쁨의 희년을 시작하며

권세오 곤잘로 신부 · 한국지부장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시지요?

『골롬반선교』 겨울호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잡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기쁜 모습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곤잘로 헤르만 보르케스 디아즈(Gonzalo German Borquez Diaz) 이렇게 긴데, 한국 이름은 권세오(뜻을 세洗, 깨달을 오悟)입니다. 저는 칠레에서 왔고, 2005년 말에 골롬반회에 입회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첫 선교 발령을 받아 한국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칠레에 돌아가서 남은 신학 공부를 마치고 2016년 6월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 정든 한국으로 다시 파견되어 그때부터 여러 교구에서 다양한 사도직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당 사목, 이주민과 청소년 사목을 하였고, 최근까지는 골롬반 신학생 양성을 하다가 올해 10월, 한국지부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11월 23일부터 지부장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지부를 대표하여 제일 먼저,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선교회 역사 안에서 줄곧 함께하시면서 아낌없는 믿음과 사랑을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마음

과 기도와 지원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선교 동반은 선교사들의 사목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 많은 이에게 전달되어 실제로 그들이 존엄과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한국이라는 지역은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과 시각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희망과 품격을 더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나눌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계절이 변하듯이 우리 골롬반회 또한, 새로운 무언가로 전환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봄, 페루에서 열렸던 본회 세계 총회에 모인 각 나라 골롬반회 리더들은 “이주민·난민”, “생물다양성” 이 두 가지를 우리 회의 우선순위 사목으로 삼기로 결의했습니다. 저는 이곳 한국에서 이 두 가지 우선순위 사목을 위해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여러분께 앞으로 신뢰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모든 골롬반 가족들—골롬반 선교사, 후원회원, 협력자, 직원—은 하나가 되어,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계속 건설하기 위해 서로 신뢰 안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일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울로 건너왔습니다. 겨울은 희망으로 가득한 계절입니다. 이 한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아기 예수님 곁에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주님께서 머무시기에 더 좋은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해 볼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 가족으로서 한국지부의 모든 선교사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따뜻한 성탄 인사를 드리며, 더불어 복된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하고, 많은 축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



차례

- 02 마음을 여는 글 | 권세오
기쁨의 희년을 시작하며
- 새로운 선교
- 04 자오 레사리
용기를 품고 나아가다
- 06 박요섭, 성요섭, 심홍석, 이정락
사제·부제 서품식
- 10 대만 이야기 | 배시현
젯더미 속에서 찾는 하느님의 은총
- 13 칠레 이야기 | 조성근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제 큰 탓이옵니다
- 16 권은정이 만난 선교사 | 서울 안광훈 신부 편
한국 사람이 된 푸른 눈의 사제
- 20 축하합니다 | 편집실 엮음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100년 여정
- 22 추모 | 이은
갈 굴리엘모 신부님을 맡겨 드리며
- 24 추모 | 김소영
사랑하는 조 파트리치오 신부님
- 26 후원회
- 28 골롬반 소식

용기를 품고 나아가다

정리 · 편집실

자오 레사리, 『용기를 품고 나아가다』, 캔버스에 유화
『Courage Over the Chasm』 by Jao Resari, Oil on canvas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여호 1,9)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느님의 명령에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2024년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총회(5~6월, 페루 리마)를 위해 제작하였다. 우리 선교회가 맞이한 새로운 변화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상징이 가득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또한, 이 그림은 새로운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한 새 사제들과 부제의 출발을 경축하는 의미를 담아 서품식 초대장에 사용되었다.

그림 속 ‘깊은 절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을, ‘다리’는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는 결단과 신뢰를 상징한다. 불확실한 미래에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용기와 신뢰를 품고 새로운 생명과 가능성으로 향하는 선교의 여정을 표현하였다.

곧 빠져버릴 것 같은 깊은 틈새 앞에서 주저하거나 뒷걸음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당신께 건너오라는 주님의 초대를 담은 그림이다. 우리의 두려움이나 계획보다 더 크신 성령은 이 길에서 우리 안과 주변을 움직이시어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봉사하도록 이끄신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희년을 선포하며 “두려움과 낙담으로 얼룩진 세계에서 기쁘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고 요청하였다. 새로운 선교로 초대받은 우리 선교회와 선교의 동반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기쁨의 해가 선포되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



사제·부제 서품식

11월 15일,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에서 이경상 바오로 주교 주례로 본회 사제·부제서품식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수품자는 박요섭 요셉 신부(수원교구 분당성요한), 성요섭 요셉 신부(의정부교구 일산), 심홍석 암브로시오 신부(인천교구 부평4동), 이정락 베라노 부제(대구대교구 신서)입니다. *(출신 본당)

이경상 주교는 구인란 토마스 주교에게 유아세례를 받았고, 서울 대신학교 교수 시절에 수품자들에게 교

회법을 가르치는 등 골롬반회와 남다른 인연이 있음을 언급하며, “주교가 된 후 처음 주례한 서품식이 골롬반 회원이어서 영광”이라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제가 무엇인가, 천주 성부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묵숨 바쳐 전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계속 이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만사가 성사이기 위한 일곱 가지 길목(칠성사)에서 성사를 잘 실행함으로써 또, 미소 한 번, 손짓 하나, 전화 한 통 받는 것 같은 일상이 모두 성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묵숨 바쳐 사랑하다가 죽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서품식을 기다리며, (왼쪽부터) 골롬반 국제신학원장 핀바 맥스웰 신부, 이날 서품된 새 사제 박요섭 신부, 성요섭 신부, 심홍석 신부, 이정락 부제, 본회 중앙 참사 김영인 신부, 부총장 피터 오닐 신부



박요섭 요셉 신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2코린 4,7)

많은 분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려 해도 너무 많아서 다 돌려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서품식에서 주교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후원회원님들의 기도뿐 아니라 실제적 도움으로 저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양성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선교회 정신에 맞게 예수님 따라서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며, 가난한 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제 삶으로 보답해 드리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요섭 요셉 신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c)

많은 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오랜 시간 소망했던 선교 사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응원과 사랑을 쉼 없이 보내주신 후원회원분들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품 성구처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지에서, 그곳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선교지에서 살아가고자 희망합니다. 선교사의 삶은 이제 제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한 사람의 선교 사제로 기쁘게 살아가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 사제들은 서울대교구와 제주교구 본당에서 사목한 후 내년 가을 선교지로 파견됩니다. 서품되기까지 10년 가까이 기도와 후원으로 동반해 주시고 성소 여정을 같이 걸어가 주신 후원회원, 수품자의 가족과 양성자, 그리고 모든 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이정락 베라노 부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결심했을 뿐인데... 이 과정 안에서 많은 분의 지지와 사랑, 기도와 응원을 받았 습니다. 서품식 미사 파견 예식에서 제가 외쳤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

을 전하십시오!”라는 경문을 기억하며 가난한 이를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고, 그분들을 향해 걸어가며, 그분들 앞에 멈추어 함께 머물러 사는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삶 안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은총 베풀어주신 하느님과, 든든한 버팀목인 골롬반 가족, 후원회원, 모든 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심홍석 암브로시오 신부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예제 16.8)

저는 2015년 2월에 골롬반회에 입회했습니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 보문동(신학원)에서, 필리핀 마닐라(영성의 해)에서, 칠레 산티아고(첫 선교)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선교 사제로서 하느님의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살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의 이 소망과 감사함을 가지고 선교 사제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젯더미 속에서 찾는 하느님의 은총

배시현 소화 데레사 선교사

나무로 지어진 소박하고 아담한 성당, 오르간 소리에 맞춘 엄마들의 노래 기도가 참 아름다워서 감동하였던... 대만 원주민 지역으로 발령받고서 그곳 다관성당에 처음 갔을 때 받은 강렬한 첫인상입니다.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새벽 2시쯤 본당 청년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관성당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 저는 연수를 받느라 필리핀에 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

는 청년의 목소리에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성당이 활활 타고 있는 사진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제일 먼저 신자들 걱정과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기에 더욱 심란할 뿐이었습니다.

다관성당(타이중 교구)은 약 70년 전 그곳에서 사목하던 메리놀회 사제가 지은 목재 구조물로 당시의 전형적인 성당 디자인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제대 뒤편

화재로 소실되기 전 다관성당에서 골롬반회 라리 신부와 본당 신자들과 즐거웠던 한때



믿기지 않은 현실이었다. 불에 탄 성당 터 옆 건물은 만남의 방으로 다행히 소실되지 않아 임시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옛 다관성당 입구

에 사제가 설 수 있는 작은 방, 나무 십자가, 소박한 14처, 나무를 자연 그대로 세워 만든 독서대, 그리고 원주민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 수채화로 그린 예수님과 성모님 성화..., 이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성당의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당 자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각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치는 기도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두 소실되어 버렸건만, 신자들은 낙담하기보다 더 큰 피해가 없었다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성탄에 우리는 연합 미사 봉헌금을 시작으로 그곳에 다시 성당을 짓기 위한 모금 활동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자들은 원주민 특색이 있는 소시지와 전통 음식(좁쌀과 소금으로 절인 돼지고기)을 만들어 팔고, 실을 엮어 만든 팔찌, 열쇠고리 장식, 동전 주머니, 휴대폰 주머니, 물통 주머니 등등 여러 가지 물건을 틈틈이 손수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 성당을 다니면서 원주민 전통 노래와 춤 공연도 선보이며 모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신앙과 공동체 의식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관성당에 걸려있었던 예수님·성모님 성화. 원주민 전통옷을 입으신 모습이 이채롭다.

배시현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로 2014년 대만에 파견되어, 원주민 타이야족이 거주하는 타이안 난산촌 지역(신주교구 관할)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본회 조 맥스위니 Joe McSweeney 신부와 원주민 선교사 베이수, 비서 비나이 선생과 다관 지역 8개 본당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신자 가정을 방문해 성경 구절 카드를 전달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금 활동을 위해 찾아간 성당의 교우들이 동참해 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고, 이곳 신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저는 진정한 선교의 의미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삶이라는 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마태 18,19-20 참조).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 제가 동참할 수 있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심에,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 순간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우리 마을에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은 특별히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더욱 따뜻한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

다관성당 신자들은 성전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여러 본당을 방문한다. 이날도 미사에서 전통춤과 노래를 선보였고, 농사로 바쁜 중에도 밤마다 모여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였다.



칠레 산티아고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제 큰 탓이옵니다!

조성근 제노비오 신부

산티아고에서 본당사목을 하고 있는 필자



리 본당 신자분들을 보더라도, 가톨릭 교리도 잘 모르고 주일미사도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잘사는 본당은 신자들이 넘쳐난다는데 우리 본당의 공소 아홉 곳을 다 봐도 주일미사에 신자분들이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본당신부인 제 잘못이 큼니다.

제가 원해서 칠레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난하며, 수도 산티아고에서 가장 넓은 지역의 본당신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게으른 신부여서 책임 있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이지 본당신부는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칠레의 현실은 사제가 부족하여 본당신부가 그 본당을 떠나면 본당 사제 없는 본당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아직 언어도 부족하고 칠레 문화도 잘 모르는, 본당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저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직분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난 신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당에 안 나가요!”

성당 밖에서 교우분들과 작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저희를 향해 소리칩니다. 그래서 저도 소리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신부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 만나러 성당에 가요!”

제가 사는 이곳 칠레는 대부분 사람이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

본당신부로서 제 욕심은 우리 본당 주일미사에 신자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신자분들이 제 강론에 감명 받아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지라도 매주,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분들 삶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삶 안에서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 달리, 부모님 기일에나 성당에 오거나, 성당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야 그동안 안 보이던 신자들도 와서 성당이 꽉 찹니다. 제 강론보다는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더 즐거워합니다. 한편, 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 주임신부의 강론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신앙으로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15년 전에 저는 이 본당에서 평신도선교사로 3년을 살았고, 이곳에서 사제 성소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서품을 받고 3년 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신자분이 제게 특별한 애정을 가

지고 계시고 저 또한, 예전부터 친구를 맺으며 많은 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분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분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할 뿐입니다.

저는 신자들이 다른 칠레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향으로 매 주일미사를 봉헌합니다. “지금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부님들은 세상 속에서 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시고 또 그것이 참 사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는 많이 부족한 본당신부이고 선교사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 미사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미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는 성당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자분들에게 더 많은 영적 물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축제를 좋아하는 문화를 가졌다. 어느 공소가 행사를 마련해 본당 신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어울리며 함께 즐겼다.

부임한 직후에 저는 공소 아홉 곳의 사목회장들과 본당 책임자들과 가진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칠레의 문화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의 삶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본당신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공소 회장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자, 공소 네 곳의 회장님들이 자신들은 성당 바깥에 성모상을 크게 짓고 싶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칠레 신자들은 성당에는 안 나와도 성모상을 보면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는 깊은 성모 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기도하며 돈을 모아 성모상을 지었고, 공소 한 곳은 아직 짓는 중입니다. 또, 어느 공소는 겨울에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칠레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다-편집자 주)에 많은 신자분이 참여해 매일 10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여 자신들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면서 내년에도 급식소를 꼭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가난하지만, 내년에는 물질적인 봉헌을 하고 싶다고도 하십니다. 그 밖에도 공소별로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살아가며, 너무나 다른 많은 것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함도 느끼고 있고, 매일 매 순간 내가 본당신부로서 선교사제로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합

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건 없이 모든 이

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성모님의 자비하심을 닮지 못하고 제가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개인적으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이들을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미사에 나와 성당에 도움을 청하라고 말하는 까칠한 사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나이 오십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도 제 탓이요, 칠레 말도 잘 못하면서 본당신부 직분을 받아들인 것도 제 탓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목하는 것은 저의 가장 큰 탓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탓이 저를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이끌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하느님의 선교사제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이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선택하셨으니 그분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

조성근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08년 본회 평신도선교사로 칠레에 파견되어 3년을 살면서 사제성소를 깨달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대신 학교에서 공부하고 2019년 사제품을 받았다. 이듬해 칠레로 다시 파견되어 현재는 예전에 활동했던 산티아고 외곽에 위치한 성 마티아 본당에서 주임신부로 사목하고 있다.

① 성당 밖에 성모상을 짓고 봉헌하던 날 ② 본당 신자들과 함께 ③ 본당 신자들이 처음으로 운영했던 무료 급식소 풍경



한국 사람이 된 푸른 눈의 사제

| 안광훈 로벨도 신부 편 |

권은정 유스티나 루이제 작가

안광훈 로벨도(Robert Brennan) 신부는 뉴질랜드계 한국인이다. 골롬반회 선교사로 한국에 온 그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2020년이다. 54년 만이었다. 그 전까지는 2년마다 체류 비자를 갱신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장기 외국인 체류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 제도가 있지만 번번이 거부되었다. 그러나 이젠 아무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은 그에게 왜 얻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한국 국적을 선물하였을까? 그는 국적 취득 당시 서울 강북구에서 도시 빈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을 것이다.

안 신부는 1965년 7월 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성 패트릭 대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서품 성구는

안광훈 신부는 1972년, 신자들과 정선신용협동조합을 시작했다. 신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훗날 이곳은 정선의 중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어린 시절 가족사진



한국으로 오는 배에서
고 미카엘 신부와 함께



원주교구에서 사목할 때
가운데는 故 지학순 주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나를 보내셨다”(루카 4.18). 이 서품 성구는 마치 그의 한평생을 예견한 듯하다. 혹은 성구에 맞춰 철저히 살아오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것 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니가요! 이렇게 하라고요!”

서품을 받고 나서 당연히 남미로 가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한국으로 가라는 명을 받았다. 그때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은 ‘막 전쟁을 치르고 난 매우 가난한 나라’라는 게 전부였다. 우리나라에 와서 2년간 한국어를 배우고 강원도로 갔다. 그는 삼척시 사직 본당 주임신부로 공소 6개와 양로원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그다음은 정선으로 갔다. 안 신부는 정선 본당에 10년 넘게 있으면서 정선의 가난한 신자들에게 살길을 터주기 위해 신용금고를 만들었다.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낸 정선 신용협동조합의 시작이었다.

정선 본당은 춘천교구에서 막 분리된 원주교구에 속하였는데 그때 ‘자신의 주교’로 故 지학순 주교를 만났다.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던 지학순 주교의 투옥은

안 신부의 정의감에 불을 붙이게 되었고 그를 정의구현사제단의 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와 동료 사제들은 자신의 주교가 투옥된 데 대하여 항의하는 표시로 수염과 머리를 길렀다. 한국에서 가난한 이들의 편에서는 것과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불의한 권력에 맞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1980년대 초에는 서울 목동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당시 목동은 지금 같은 동네가 아니었다. 도심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전기를 끌어와야 했던 곳, 대부분 벼농사를 짓던 낙후된 지역이었다. 외진 산골 강원도 본당들과는 많이 달랐던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그중 하나, 여성 교우에게 성체 분배를 맡겼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난리가 났다. 하지만 견진성사 때 오신 김수환 추기경은 “그게 사실이나?”하는 말씀이 전부였다고 한다. 안 신부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분을 기억한다.

“그럴 수 있는 분이 없었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빈곤한 공동체를 위한 주거권 투쟁과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이어오던 안 신부는 골롬반회 신학생 양성



안 신부의 서품 상본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성구가 적혀있다.



안광훈 신부의 자서전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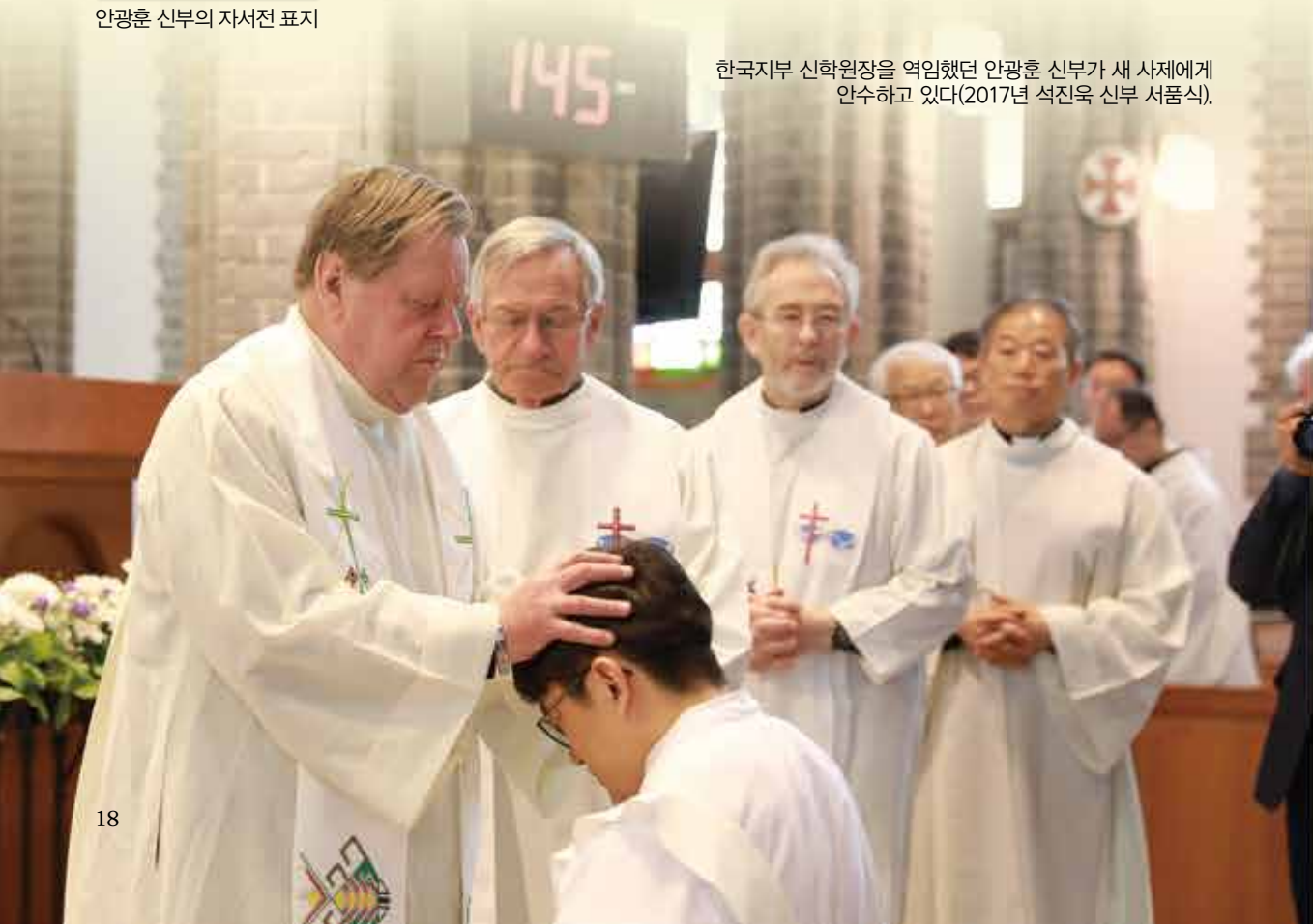
장으로서 일하다가 1992년에 다시 대구로 산동네 판자촌이었던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도시빈민 사목을 전개했다. 동네 사람들이 터전을 빼앗기게 생겼을 때 그는 세입자 대책위원회 대표로 사제복을 입은 채 용역 깡패들과 불도저에 맞섰다. 그리고 처음 생겨난 삼양동 선교본당을 맡게 되었을 때는 평소 하고 싶었던 바를 실천했다. 선교본당은 대부분 본당이 하는 교무금이나 주일학교 없이 기도와 미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 그가 시도하는 방식은 교구에서는 꺼리는 것이었다. 교회 전통에 따르는 것이 편한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가 되묻는다.

“무엇이 전통입니까? 그 전통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느님이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어떤 교황이 어떤 시기부터 그렇게 하라고 한 게 교회 전통이 된 거 아닙니까?”

언젠가부터 그렇게 해온 것, 많은 이가 군소리 없이 따라 하는 것을 우리는 신성불가침한 ‘전통’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방식이 과연 얼마나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용기도, 열정도, 성실함도 없이 말이다.

뉴질랜드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던 그를 보면 중년이

한국지부 신학원장을 역임했던 안광훈 신부가 새 사제에게 안수하고 있다(2017년 석진욱 신부 서품식).



안광훈 신부는 철거민들과 동고동락하며 도시빈민들을 위해 헌신했다.



본당 신자들과 아유회를 갔을 때



자서전에 사인을 청하는 신학생에게 메시지를 적고 있는 안광훈 신부

넘어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로 길을 나섰던 골롬반 성인의 모습이 비친다.

“그분은 마흔 넘은 나이에 길을 떠났어요. 그가 살아오던 곳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었지요. 무언가를 찾으러 나섰어요!”

‘안주’와 ‘만족’하는 일 없이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고 살아온 그는 골롬반의 진짜 후예가 맞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그에게 사치는 무엇인지 궁금했다.

“한 잔의 술?!”

가난한 사제가 빙긋이 웃으면서 답한다.

얼마 전에 펴낸 자서전에서 안 신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한다.

“우리 골롬반 회원의 숫자는 결코 대단하지 않고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작은 발자취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감히 말하건대, 그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며 그의 가치관에 따라 가르치고 살아가는 위대한 모험이었다. 나는 그것의 일부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힘난한 격랑의 시대를 우리와 함께 헤쳐 온 그에게 이제 닳을 내리고 좀 쉬시라고 권하고 싶다. 여든이라는 나이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꼭 휴식이 필요하다. (그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있는 그는 분명, 골롬반 투사다. ✠



권은정

전문 인터뷰어이자 번역가, 작가이다. 한겨레신문 해외통신원, 국무총리실 홍보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윤공희 대주교의 북한 교회 이야기』, 『불꽃이 향기가 되어』 등 인터뷰, 구술 책을 작업했고, 신문과 잡지에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100년 여정을 축하합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가 올해 설립 100주년을 지냈고, 2025년에 한국 선교 70년을 맞습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공동창설자 존 블로워 신부는 중국 선교를 위해 여성 협력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비전은 아일랜드의 많은 여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훗날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공동설립자가 된 프란시스 멀로니(메리 패트릭 수녀) 여사가 이에 응답했습니다. 공동설립자로서 메리 패트릭 수녀와 존 블로워 신부는 국적, 문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기쁜 소식을 아직 전해 듣지 못한, 가난한 이들 중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수녀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실현되었습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회원들, 9월 28일, 서울 본원에서 10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존 블로워 신부(앞줄 왼쪽)가 1963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활동하던 골롬반 수녀회 회원들을 만났다. 앞줄 가운데는 현 헨리 주교

1922년 2월, 선교수녀회 설립을 허가받고, 그해 말에 첫 청원자 그룹이 입회하였습니다. 1924년 9월 29일 이들이 첫 서원을 함으로써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공동설립자
마더 메리 패트릭 수녀와 존 블로워 신부

▶ **그림** |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민아 마리안나 수녀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한 그림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설립자들과 초창기 수녀들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걸어온 100년 여정,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퍼져나갈 희망을 나무의 나이테로 표현했다.



회(이하 골롬반 수녀회)가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시작해 세계 곳곳으로 파견되어 미국, 미얀마, 중국, 칠레,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한국, 홍콩 등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한국 선교는 1955년에 시작하였습니다. 본회 현 헨리 주교(당시 광주지목구장)의 초대로 그해 1월, 첫 그룹인 네 명의 골롬반 수녀들이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파견은 계속 이어졌고, 골롬반 수녀회는 가난과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왔습니다. 또한, 간호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의료 기반을 다지는 데도 헌신했습니다.

의료적 도움과 더불어 제주에서는 한림수직을 운영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돕고 장애인들에게 가내 수공업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양로원, 요양원, 호스피스, 야학, 유기농 생태 공동체 현장에도, 미혼모, 철거민, 장애인, 이주민, 실향민, 감염인, 중독자, 집창촌 여성 결에도 골롬반 수녀회가 있었습니다. 수혜 대상이 아닌 벗으로서 만나고 환대하고 동반하였습니다. 우리회는 골롬반 수녀회가 춘천, 목포, 제주, 속초, 영주, 삼척, 서울에서 묵묵히 걸어온 발자취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입니다.

“저희의 선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초대를 받고 문화와 언어 종교의 벽을 넘어서 서로 친구가 되어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일, 그것이 선교,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골롬반 수녀들은 앞으로도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총을 따라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선교 여정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지부 대표 이현경 벨라벳다 수녀, 100주년 감사미사에서

초창기 회원들이 품었던 용기와 비전, 그리고 그들이 몸소 보여준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긴급한 요구와 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위험과 도전에 투신해 온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그 복된 100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100년을 축복합니다. ✠

• **자료 출처:**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한국지부 홈페이지, 홍보리플릿, 100주년 감사미사 영상 자료
• **정리:** 편집실

갈 굴리엘모 신부님을 맡겨 드리며

이은 베드로 후원회원

전국이 초토화되고 삶의 희망마저 까맣게 타버린 이 땅에 갈 굴리엘모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전쟁의 상흔 가득한 환경에서 사목을 시작하신 갈 신부님은 특별히 농촌에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와 소외된 사람에게 힘이 되어준 충직한 사제로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전쟁 중 두 돌이 되기도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아버지와 서울에서 살다가 화순으로 이사하였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내과를 운영하셨습니다. 아마도 갈 신부님께서 아버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며 인연을 맺으셨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화순에서 아버지는 신앙 깊은 신사 어머니를 만나 화순성당에서 혼배를 하셨는데, 그때 본당 주임이었던 갈 신부님께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열 살이었던 저는 그날 신부님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신부님 곁에서 복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눈보라가 폭풍처럼 몰아치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미사 복사를 하러 언덕 위에 있던 성당을 향해 퍼붓는 눈 속을 열심히 달려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코, 이 눈을 맞으며 베드로가 왔구나!” 갈 신부님은 눈을 털어 주시고 덤석 저를 안아 제의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 온몸이 얼음이 되었어.” 해 맑은 미소를 가지신 인자한 어버이 같으셨습니다.

1년 반 뒤쯤, 투병하시던 아버지마저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후로 저는 갈 신부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저를 위해 신부님은 미국의 후원자를 연결해주셨고, 물심으로 지원해 주셔서 제가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제 생명줄이셨습니다.



갈 굴리엘모 신부의 교회 잔치 때 필자 가족이 함께했다. 1998년 장성 사거리성당

신부님은 장애가 있는 제 아들 주환이를 친손자와 같이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 첫 주 화요일마다 미사를 해 주셨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미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신부님의 일상은 절제와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갈 굴리엘모 신부님께서 장성 사거리 준본당 주임으로 계실 때, 본당 교육관과 계단 안전 난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부님은 고국에 가서서 지인과 가족에게 청하여 모금을 해 오셨습니다. 검소하셨고 가난한 삶을 몸소 실천하셨던 신부님은 당시 생활비를 더욱 절약하셔서 한 푼 한 푼 모아 모두 기탁하셨습니다. 아무 내색 없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신 신부님의 성품과 생활을 잘 알고 있던 저는 모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신부님께 보은할 수 있어서 기쁠습니다. 열 살 꼬마 시절부터 신부님 선종하실 때까지 그분의 삶의 일부를 함께할 수 있었으니 행복했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티 없이 깨끗한 성품을 가지신 진정한 성직자요 선교사였던 갈 굴리엘모 신부님, 정말 신부님은 오랫동안

안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신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장성에 있는 공소에서 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센병이 완치된 분들이 사십니다. 신부님은 이미 노령이신데도 마을 사람들을 보듬고 이웃으로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인 이웃을 위해 평생 조용히 숨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늘은 이슬비처럼 소리 없이 의인을 내리시고, 주님께서 파이란 뜰에 갈 신부님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갈 신부님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물처럼 신부님은 가장 낮은 곳부터 소리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갈 신부님이 하늘길로 오르실 때 무덤에 흙을 뿌려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신 신부님, 쓸쓸해하지 마세요. 신부님처럼 아름다운 눈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많이 찾아서 신부님께 전해 드릴게요.”

보소서. 저희의 방패이신 주님, 갈 굴리엘모 신부님께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리란 희망으로 주님의 품 안에 신부님을 고이 보내드립니다. 끝없이 은총을 내리시는 주님과 성모님께,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청하신 갈 굴리엘모 신부님을 위해 이 베드로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



이은
화순 본당에서 사목하던 故 갈 굴리엘모 신부를 열 살 무렵에 만나 가까이에서 줄곧 세월을 함께 지냈다. 이제는 골육반회 후원회 원으로서 고인의 후배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의 동반자가 되기로 하였다.

사랑하는 조 파트리치오 신부님

김소영 세실리아·본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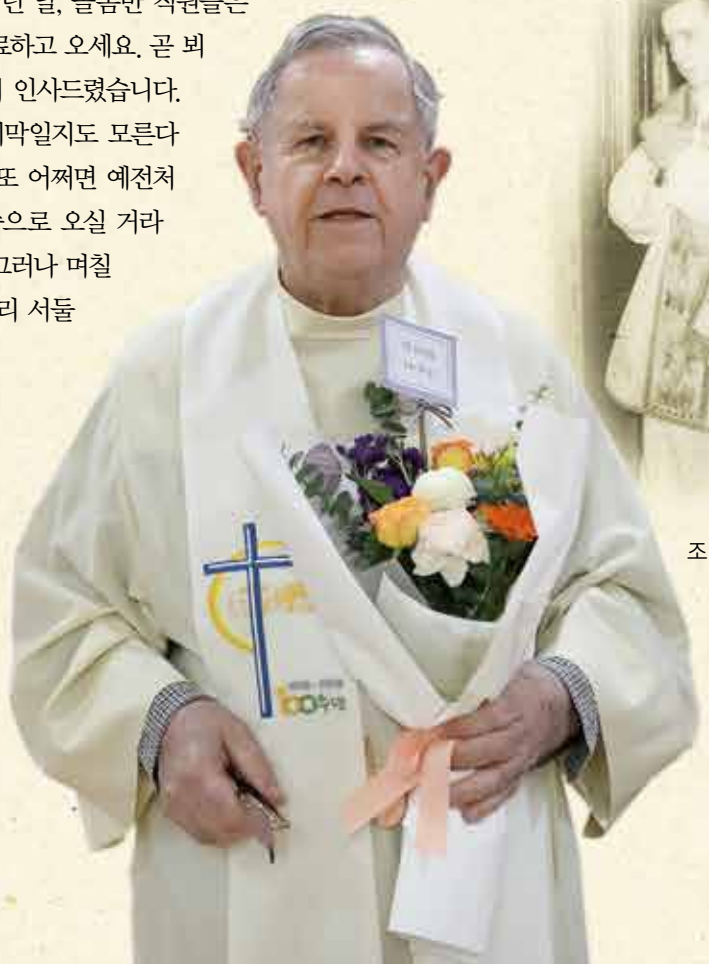
“세실리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세실리아, 수고 하세요. 갓 블레스 유(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조 파트리치오 신부님의 아침 인사 꾸러미는 늘 이렇게 푸짐했습니다. 미사 하러 가시려면 지나가야 하는 사무실 복도에서 만나는 이에게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고 이름을 불러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신부님을 병원으로 모시던 날, 골룸반 직원들은 배웅하며 “신부님, 얼른 치료하고 오세요. 곧 뵈어요!”라고 부러 밝고 크게 인사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날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예전처럼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신부님은 하느님께로 그리 서둘러 건너가셨습니다.

이 잡지에 추모글을 어느 분께 부탁드려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어느 한 분께 부탁드리면 다른 분들이 서운하실 텐데 하던 차에 오기백 신부님이 조 신

부님 머무시던 방에서 아주 오래된 편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아, 바로 이 글이야!’ 생각했습니다. 조 신부님이 사목하셨던 인천 고잔동 본당에서 이임하실 때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우들에게서 받은 30년 전 편지였습니다. 신부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나 있었고, 하늘 나라로 떠나신 신부님과 작별하는 편지 같기도 하였습니다.



▲ 25살, 사제서품식 때 조 파트리치오 신부(오른쪽)



조 파트리치오 신부가 수원교구 성남 상대원성당에서 주임으로 사목했을 때(1980년)

사랑하는 조 파트리치오 신부님께

저희가 인사하면 항상 따뜻한 웃음으로 반기시고, 몸이 아파 힘 들어하는 사람,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눈보라 치는 날에도 찌는 무더위에도 먼 길 마다치 않고 함께하신 신부님, 신부님께서 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리하신 신부님의 크기와 또 우리가 얼마나 신부님을 필요로 하는지들요.

신부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또 아픈 곳을 잘 살펴주셨는지를 압니다. 신부님 자신은 돌보지도 않으시면서 가난하고 병들어 지친 사람들,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다시 일어서도록 디딤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말씀만이 아닌 몸소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웃을 내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향에서 아주 먼 곳까지 젊어서 오셔서 가슴 아파하시고 애쓰시고 헌신하신 신부님, 신부님의 고통 받는 이를 위한 헌신은 보통 사람은 흉내 내기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신부님의 사랑 실천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 애쓰신 것 헛됨이 없도록 살아가며 실천하겠습니다. 헤어짐에 익숙한 사람 어디 흔하겠어요, 하지만 저희 아린 마음 추슬러, 멀리 계시더라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평화 속에 늘 주님과 함께하세요. 신부님 사랑해요, 신부님 정말로 사랑해요.

신부님은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라는 글씨가 적힌 『자비의 예수님』 성화를 인쇄해서, 고해성사하신 분, 방문객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직원들도 받아 사무실에 붙여 놓았는데, 볼 때마다 신부님을 떠올리며, 신부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는 용서와 인내와 내어 맡김을 청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신부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라 여깁니다.

신부님 미사하러 가시던 시간쯤 되면, 복도를 돌아 신부님이 오실 것만 같습니다. 고해성사하러 오시는 분들을 기다리며 대문 밖에 서 계신 모습도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아직은 신부님이 많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 하늘 나라에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성모님과 함께 저희와, 특별히 아픈 이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심을 믿으며, 기도 안에서 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조 파트리치오 신부님에 대한 기억 한 조각이라도 보태어 주실 분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록하여 남기겠습니다. ✉ magazine@columban.or.kr 02) 927-2705

문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회원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에 문의하기 게시판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02-929-1366
이메일: ks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062-371-5824
이메일: kjfund@columban.or.kr

「골롬반선교」 잡지는 연 3회 발송(4, 9, 12월 예정)하며 이때 지로로 납부하시는 회원님께 지로용지를
3장씩 동봉하오니 용지가 더 필요하신 분은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신청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4년 12월 ~ 25년 3월

	12월	1월	2월	3월	장 소	문 의
서울(명동)	6일	3일	-	7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서울(돈암동)	27일	31일	28일	28일	돈암동 본부	02-929-2977
인천	10일	14일	11일	11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1일	-	12일	12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1일	10일	14일	14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7일	24일	28일	28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	21일	25일	25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	22일	26일	26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	23일	27일	27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	24일	28일	28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2일	-	-	13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	22일	19일	19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제주	-	21일	-	18일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	-	18일	-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지역별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사 참석 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산 후원회 12월 미사는 둘째 주 수요일 11일로 변경합니다.
- 광주, 제주 후원회 12월 미사는 없습니다.
- 원주 후원회 1월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후원회(명동) 2월 미사는 없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온라인 신청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3,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신한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장·부지부장 임명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총장 안드레이 파즈 신부가 10월, 권세오 곤잘로 신부를 한국지부장에 임명했습니다. 또한, 부지부장에 양창우 요셉 신부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지부장 권세오 곤잘로(Gonzalo German Borquez Diaz) 신부는 칠레 출신으로, 2016년에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1월 한국에 왔습니다. 본당 사목, 이주민·대학생·청소년 사목을 하였으며, 최근까지 골롬반 신학생 양성을 맡아왔습니다. 또한, 부지부장 양창우 신부는 대구 출신이며, 2000년 사제품을 받고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선교하였습니다. 한국지부에서 성소국장과 신학원장을 역임하였고, 부지부장을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3년입니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골롬반회에 봉사하게 된 새 지도부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지부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권세오 곤잘로 신부 양창우 요셉 신부

|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님들과 후원회원 여러분께 |

한국지부장으로 보낸 지난 3년은 참으로 특별한 시간이었으며,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길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 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와 손길이 없었다면, 그 많은 길과 그 많은 도전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보다도 함께하는 용기를 선택했고, 변화를 향한 그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 사랑의 무게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국지부가 변화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사랑을 나누는 여정을 계속하도록,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후임 지부장에게도 따뜻한 지지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서 평화로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드림

골롬반 선교사들 출연 방송 안내

방송을 통해서도 선교가 이어집니다. 골롬반 선교사들이 출연한 방송을 유튜브와 각 방송사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 **KBS 열린채널**
발달장애인의 친구! 천노엘 신부!
- **가톨릭신문 유튜브**
저를 보내십시오: 이어돈 신부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둘레특강: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CPBC 가톨릭평화방송**
TV매일미사(12월 3일, 6일):
양창우 요셉 신부

후원회 연례 무료 피정 성료

골롬반 후원회원을 위한 연례 피정을 신청하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10월에는 광주 지역 후원회 피정이 있었습니다. 18일 순천 저전동성당과 22일 목포 대성동성당에서 양창우 요셉 신부가, 24일 전주 덕진성당과 25일 광주 골롬반선교회관에서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가 피정 지도를 맡았습니다. 서울에서는 11월 3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시각장애인 황인숙 선교사, 양창우 신부가 피정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피정을 통하여 기도 생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 11월 20일, 지부회의를 마치면서 지부장 이취임 미사를 봉헌했다.

코리아타임스 현대문학번역상, 오록상 제정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등용문인 코리아타임스 현대문학번역상이 11월 14일 시상식을 열어 골롬반회故 케빈 오록 신부(2020년 선종)의 이름을 딴 오록상을 제정, 유망한 젊은 번역가들에게 시상했습니다. 앞서 10월 17일에는 주한아일랜드대사관에서 오록 신부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록 신부는 1964년 한국에 파견되었고 외국인 최초로 국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경희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선교의 장을 펼쳤습니다. 고인은 12세기~현대의 한국문학 2,000편 이상을 번역하여 세계 최고의 한국문학 번역가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록 신부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을 때(2009년 한글날)

노승준 신학생 칠레로 첫 선교 파견

본회 유기회원 노승준 요한 바오로 신학생이 해외 선교 실습을 하기 위해 9월에 칠레로 떠났습니다. 앞으로 약 2년 동안 여러 나라 출신 골롬반 선교사들과 함께 지내고, 선교지 이웃들과 함께하며,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노승준 신학생은 청주교구 출신이며 서울 대 신학교에서 공부한 뒤, 필리핀에 있는 골롬반 국제신학원으로 옮겨 수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이제 칠레로 또 한 걸음 내디딘 그가 새로운 언어와 문화 안에서 그곳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10차 해외선교사 귀국프로그램, 제주 이시돌에서 열림

골롬반회가 참여하는 한국 가톨릭해외선교사 교육협의회가 10월 21~26일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해외선교사 귀국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해외 선교를 마치고 귀국한 선교사 11명이 참여해, 다른 문화 안에서 살아온 선교 생활을 돌아보고, 한국 사회와 교회에 재적응하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문화 재충전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성찰과 치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기백 신부(뒷줄 가운데)를 비롯한 귀국프로그램 진행자들과 참가자들



골롬반 소식



갈 굴리엘모 · 조 파트리치오 · 오 미카엘 신부 선종

평생 한국에서 활동한 갈 굴리엘모 신부, 조 파트리치오 신부가 지난 9월에 선종하였습니다. 두 사제 가시는 길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장례 과정에서 많은 배려와 마음을 나눠주신 서울대교구 사제단과 광주대교구 사제단 그리고 교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땅에 묻힌 두 분 사제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평생 충실했던 당신의 사제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아멘.”



조 파트리치오 신부
Rev. Patrick Muldoon



갈 굴리엘모 신부
Rev. William Gallagher



오 미카엘 신부
Rev. Michael O'Loughlin

한국에서 65년을 살면서, 본당사목과 병원사목을 하였던 조 파트리치오 신부가 2024년 9월 6일 선종하였습니다. 수많은 본당에서 사목하는 가운데 서울 상계동, 수원교구 상대원, 인천교구 상동에 본당을 설립하였습니다. 은퇴 후 서울 돈암동 본부에 머물며 면담 고해 사제로서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장례미사는 9월 9일 1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에서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시몬 대주교 주례로 봉헌하였습니다. 천주교 용인 성직자 묘원 안장

- 1934년 3월 5일 아일랜드 도나몬 출생
- 1958년 12월 21일 사제 수품
- 1959년 10월 한국 도착
- 1960년~1969년 광주대교구 합평 보좌·진도·무안 주임
- 1970년~1996년 서울대교구 상계동(설립)·마천동·신정동·수원교구 상대원(설립)·인천교구 상동(설립)·고잔 주임
- 1998년~2014년 서울대병원·국립의료원·강북삼성병원 원목실장
- 2014년 은퇴 후 서울 골롬반 본부 면담고해
- 2024년 9월 6일 선종

2024년 9월 22일 선종한 갈 굴리엘모 신부는 한국에서 70년을 살며 평생 광주대교구에서 선교하였습니다. 공소와 본당 짓는 일을 큰 사명으로 여기고 실천했으며, 가난하고 아픈 이들, 특별히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은퇴 후 농촌 마을에서 공소 사목을 하며 평생 선교사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례미사는 9월 25일 10시, 광주대교구 염주동성당에서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가 주례하였고, 윤공희 대주교도 함께하였습니다. 천주교 담양 성직자 묘원 안장

- 1929년 3월 13일 아일랜드 레터케니 출생
- 1954년 10월 4일 사제 수품
- 1955년 4월 한국 도착
- 1955년~1958년 광주대교구 합평·목포 산정동·원동(구 송정리) 보좌
- 1958년~1973년 화순(설립)·해남·영광 주임
- 1974년~1990년 영암·영산포·광천동 주임·압해도 공소
- 1990년~2002년 장흥·장성 사거리(당시 준본당) 주임
- 2003년 은퇴 후 장성 성진 마을 공소 사목
- 2024년 9월 22일 선종

원주교구故 지학순 주교 비서를 포함해 강원도에서 20년 가까이 사목했던 오 미카엘 신부가 2024년 11월 19일(현지 시각) 아일랜드에서 선종하였습니다. 평생 인권, 정의와 평화, 하느님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친 선교사였습니다. 장례미사는 11월 22일 11시, 아일랜드 성 골롬반 성당에서 봉헌하였습니다. 아일랜드 성 골롬반 묘원 안장

- 1935년 9월 29일 아일랜드 에니스 출생
- 1960년 12월 21일 사제 수품
- 1961년 9월 한국 도착
- 1962년~1964년 안동교구 울진 보좌
- 1965년~1970년 원주교구청 교구장 비서, 사회복지 담당
- 1970년~1978년 삼척 성내동·문막·용소막(신립) 주임
- 1978년~1994년 미국지부 선교 홍보, 정의 평화 사무실, 성소 담당, 미국지부장
- 1994년~2000년 본회 중앙 참사위원
- 2024년 11월 19일 선종

골롬반 소식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12월의 독립운동가” 손 파트리치오·나 토마스·서 아오스딩 신부

국가보훈부가 선정·발표했던 2024년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중 12월은 일제강점기에 제주도민에게 일본의 실태를 폭로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손 파트리치오·나 토마스·서 아오스딩 신부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에 광복회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선정패 수여식을 열며, 독립기념관은 누리집에 온라인 전시를 합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던 이 세 신부는 1942년, 항일운동으로 기소되어 형을 받고 투옥되었는데, 손 파트리치오 신부는 광복이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199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 선교사들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여 건국훈장(맨 아래 사진)을 추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까지 항일운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가톨릭 사제들입니다.



손 파트리치오 Patrick Dawson 신부(1905~1989)

아일랜드 출생

1932년 사제 수품
1933년 한국 도착
1970년까지 제주, 광주, 춘천, 원주, 서울에서 사목
일제강점기에 3년 반 동안 수감
대한민국 대통령 건국훈장(애국장)
미국 오마하 묘지 안장



서 아오스딩 Augustine Sweeney 신부(1909~1980)

영국 출생(국적 호주)

1934년 사제 수품
1935년 한국 도착
1949년까지 광주, 제주에서 사목
일제강점기에 2년 동안 수감
대한민국 대통령 건국훈장(애족장)
뉴질랜드 타이타 묘지 안장



나 토마스 Thomas D. Ryan 신부(1907~1971)

아일랜드 출생

1932년 사제 수품
1933년 한국 도착
1971년까지 제주, 광주에서 사목
일제강점기에 2년 동안 수감
대한민국 대통령 건국훈장(애족장)
제주도 황사평 성직자 묘지 안장



골롬반 선교

2024년 겨울호

vol. 129



표지 이야기

지난 11월 15일 사제품을 받은 골롬반회 새 사제들. 왼쪽부터 박요섭 요셉, 심홍석 암브로시오, 성요섭 요셉 신부다. 이들은 한국 교회 본당에서 사목을 한 후 내년 가을 선교지로 파견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 6~9쪽

편집실 Tel. 02-927-2705
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s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주소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발행일 2024년 12월 1일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발행인 권세오 신부
편집위원 권은정
이시영 선교사
취재편집 김명기, 김소영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인쇄 서울프로아트



11월 15일 부제품을 받은 골롬반회 이정락 베라노 부제가 출신 본당인 대구대교구 신서성당(주임 김문상 디오니시오 신부) 공동체와 가족들과 함께 명동성당 성모동산에서 기념 촬영을 하였다.

해외선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성 골롬반을 본받아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문화 속에 살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정의를 위해 투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
이 삶은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또 내가 응답해야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십시오.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35세 이하인 젊은이

문의 권세오 곤잘로 신부

vocation@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주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